

청소년국제여름마을 한국캠프 소방교육

포천소방서 하계 119소방안전교실 운영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여름 방학을 맞아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안전수칙을 생활화하여 즐겁고 보람 있는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한 하계 119소방안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마련했다. 특히 참수면 소재 동양제철화학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청소년국제여름마을(CISV-Children's International Summer Village) 한국캠프에 참가한



포천소방서는 참수면 소재 동양제철화학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청소년국제여름마을 한국캠프에 참가한 12개국 40명과 지도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12개국(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네덜란드, 필리핀, 중국, 일본, 한국) 만 11세 단원 40명과 지도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의정부소방서 이동안전 체험차량교육 ▶119구조대원들의 생활안전구조교육 ▶물소화기를 이용한 소화기 체험 ▶소방차량을 이용한 화재진압체험 등의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해 12개국 단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낙우회 폐품 판매 기금

포천시인재장학재단에 100만원 장학기금 후원

포천시는 포천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서울우유 포천낙우회(회장 배인호)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회비 및 폐품 등을 팔아 모은 장학기금 100만원을 재단법인 포천시인재장학재단(이사장 박윤국)에 기탁했다. 7월30일 포천시청 시장실에서 거행된 전달식에는 박윤국 포천시장은 물론 배인호 서울우유 포천낙우회 회장, 이은미 포천시 여성



서울우유 포천낙우회는 회비와 폐품을 팔아 마련한 100만원을 포천시인재장학재단에 기탁했다.

국립수목원 한국 선대식물 목록집 발간

한반도에 950종류 선대식물 분포 새롭게 밝혀

국립수목원(원장 박종서)은 한반도에 분포하는 선대식물 950종의 목록을 정리한 '한국 선대식물 목록집'을 발간했다. 국립수목원의 '한국 선대식물목록집' 간행으로 선대식물이 한반도에 950종류가 분포한다는 것이 새로이 밝혀지게 됐다. 한국 선대식물 목록집은 1980년 최두문 교수에 의해 한국선대식물도감에 681종류가 정리된 이후 처음으로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고등식물인 관속식물에 관한 연구논문, 도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② 호반새 [Ruddy Kingfisher]

빨간 립스틱을 바른 미녀

먹구름이 짙게 드리운 산자락을 돌아설 무렵 후둑후둑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소리가 귓가에 들려옵니다. "코르르르, 삐오오, 삐오오..." 호반새의 감미로운 소리입니다.



2007. 7. 7 강원도와 포천에서 촬영

초여름에 접어들면 가끔씩 들려오는 호반새를 만나기 위해 작년 부터 강원도 민통선 근처에도 가 보았고, 최근까지 목격된 우리고장의 호반새 동지근처에도 가 보았지만 워낙 부끄러움을 잘 타는 새 색이 같은 호반새와의 만남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호반새가 자주 나타난다는 길목에 위장텐트를 설치하고 설레이는 만남을 기다렸지만, 야속한 호반새는 멀리서 울음소리만 들려줄 뿐 좁쌀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군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호반새와의 짧은 만남은 정말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산모퉁이 돌아서자마자 립스틱 짙게 바르고 붉은 옷을 껴 차려입은 호반새가 떨어지는 빗줄기를 피해 잠시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흥분해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니 빗줄기가 차안으로 들이치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우아한 자세를 담기 시작했지만 날씨가 어두워 셔터 스피드가 안나와 흔들리는 사진이 되어 버렸고, 아쉬울만 남긴 채 호반새는 훌연히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같은 장소에 가 보았지만 야속한 호반새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울음소리만 들려줄 뿐이었습니다. 포천의 호반새와의 짧은 만남은 이렇게 아쉬울만 남기고, 내년에 재회 할수있기를 기대하며 끝났습니다.

다음날 강원도 모처에서 호반새가 번식중이라는 지인의 반가운 제보를 받고 그 날 발길을 달려 도착하니 새벽3시, 졸리운 눈을 잠시 붙이고 새우잠을 청하고 있는데 귓가에는 감미로운 호반새의 울음소리가 새벽잠을 깨우지만 아직 동이 틀려면 1시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다시 잠을 청하였습니다. 꿈결에 아스라이 들리는 호반새의 옥구슬 소리에 눈을 뜨니 벌써 8시, 서둘러 장비를 준비하여 호반새 동지 근처에 다가오니 저 멀리 이미 새의 부지런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미 새가 놀라서 날아 갈까봐 조심조심하며 접근을 시도해보았

지만 야속한 호반새는 숲으로 날아가 버리네요. 그렇게 1시간을 기다리니 어미새는 어린 새끼에게 즐기고 황소개구리 한 마리를 물고 와 동지 속에 있는 새끼에게 주고 동지 근처 나뭇가지에 앉아 주변을 경계하더군요. 호반새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위해 카메라의 셔터소리가 다더다다...를 연발하지만 그만 버퍼에 걸려 달걀, 달걀... 한 장씩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위장을 하고있는 우리일행에게는 경계령을 해제하였는지 10여 미터 앞까지 다가와 사냥하는 장면을 보여준 호반새가 그렇게도 이쁠 수가 없었습니다. 호반새는 여름철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고 겨울에는 동남아 등지에서 월동을 하는 여름철새로 옛날에는 불새라고도 불렀습니다. 주로 우거진 숲의 나무구멍이나 절벽의 틈새나 청호반새처럼 절



포천신문 조시위원장 이상일 017-705-0994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

영종면 교육문화센터, 동두천 청소년 오케스트라

8월1일 포천시 영종면 교육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한여름 밤의 더위를 식혀주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동두천 청소년 오케스트라 팀이 영종초등학교에서 합숙훈련을 하는 기간 중 시간을 할애하여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를 개최했다. 교사 그리고 초·중·고 학생 27명으로 구성된 동두천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대중가요, 애니메이션 주제곡, 플루트 앙상블, 성악(테너) 등 주민들이 친숙하게



지난 1일 영종면 교육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두천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개최됐다.

2007년 포천시 호남 향우회 한마음 대축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새로운 도약을 향하여~!!

호남인 친목의 한마당 감동과 축제의 만남

- ◆ 일시 : 2007년 9월 9일(日) 개최식 14:00
- ◆ 장소 : 포천종합 운동장(실내체육관)
- ◆ 주관 : 포천시 호남향우회
- ◆ 후원 : 포천지회, 송우지회, 가산지회, 영종지회, 영복지회, 일동지회, 이동지회
- ◆ 인기가수 송대관 초청소
- ◆ 남보원 등 방송인 다수 출연
- ◆ 품바(각설이 공연)
- ◆ 노래자랑(최우수상 1명 대형냉장고) (우수상 1명 대형세탁기) (장려상 2명 28인치 TV) (인기상 2명 압력밥솥)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경품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함께하는 호남인, 참여하는 하나의 호남인 ◆